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30주년 불교대중·생활화 큰기여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김정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거사불교의 새 역사를 열고 있다.

25일 통도사 부산포교원 3층 법당에서 보성스님을 초청법사로 창립 30주년 기념대법회를 여는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 거사 중심의 생활불교를 제창하며 컷걸음을 내디뎠다. 거사들의 불교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 창립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한국 거사불교의 원조로 거사불교 활성화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또한 창립때부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마다 꾸준히 열여온 화요법회는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며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

25일 열리는 보성스님 초청법회는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제681회 정기법회로 거사림회의 오랜 전통과 부단한 포교 운동의 역사를 대변한다. 한 신행단체에서 7백회에 달하는 법석을 이어왔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초청된 법사들의 면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석암, 경봉, 향곡, 탄허 스님 등

님과 재가 지도법사는 모두 150여명. 75년부터 상임지도법사로 300회 가까이 법문해 온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95년부터 상임법사로 활동해 온 지인스님(전 통도사 강주)을 제외한 모든 스님들은 매 법회마다 일일이 모셔졌다. 평균 참석인원 3백여



◇지난 9월 부산 세마당에서 열린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20주년 기념 원명스님 초청법회.

거사불교 '원조'...25일 기념법회 봉행 법석 700회...경봉스님·이기영 박사 등 법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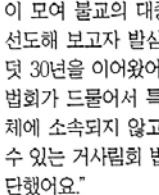
당대의 선지식들과 백봉 김기추 거사, 이기영 박사 등 재가의 법사들이 모두 법회의 법단에 올랐다. 그동안 거사법회에서 설법한 스

명에 달하는 대중 법회를 열기 위해, 스스로 대중의 심부름꾼이 되어 덕 높은 스님들을 찾아 모시는데 들인 거사림회의 노고를 짐작케 한다.

정기법회를 통해 부산불교는 물론 전국에서 활동하는 거사들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어왔던 부산불교거사림회는 이제 전국에 특정한 뿌리를 내리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법의 그늘과 혜택을 드리우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김정도(65, 자영업) 회장은 "30년 동안 역대 선배들이 보여준 포교 운동은 한국 거사불교운동의 중추가 되었다"며 "차세대 불교를 이끌어갈 젊은 거사들을 길러내는 포교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山寺탈피 마을포교 초창기법회 인기 대단" 부산불교거사림 이인희 자문위원



"16명 정도의 뜻있는 거사들이 모여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선도해 보고자 발심했던 것이 어느덧 30년을 이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법회가 드물어서 특정 사찰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사림회 법회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인희(79, 부산불교거사림회 자문위원) 거사는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산증인이다. 김석배(86) 초대회장 재임시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75년부터 세차레나 회장을 역임한 이 거사는 회원을 통틀어 법회 참석

진각종 교리 교학적체계 갖춰야

회당대중사 탄생100돌 세미나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이 18일 위덕대 대회의실에서 회당 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진각종의 창교의의와 밀교수행법"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위덕대 김무생 교수와 장익 교수의 '종교의 종파관과 창교의의' '대일경의 수행관'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무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진

각종의 정신적 바탕과 교리는 시대를 뛰어 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성은 시대상황을 정확히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진각종의 종교적 정신과 교리를 보다 명확히 교학적 체계로 다듬고, 이에 따른 수행 및 실천 양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우 기자

'한일 모두 16강' 보람 월드컵 평화도보 대장정 회향

한일 개최 도시를 걸어서 돌아보는 2002 평화도보 대장정 단장정원 공스님 일행 12명이 일본 순회를 마

치고 16일 부산항으로 귀국했다.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를 걸어서 돌며 환경 캠페인도 벌인 장정단은 25일 울산 문수경자장을 거쳐 30일 대구 종합경기장까지 걷는 것을 끝으로 4천km에 이르는 대장정을 회향한다.

김재경 기자



◇1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원공스님(오른쪽) 등 평화대장정 단원들.

"금강경독송·참선 위출혈치료"

장쩌민주석 정혜스님 만나...종교정책변화 가능성



방문하며 불경, 성경, 코란 등도 탐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과를 마치고 밤에 때론 <금강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장 주석은 당시 당중앙 조직부장과 해방군 총참모장 등을 대담하고 백련선사를 참배했으며 사찰 도찰 후 차에서 내린 뒤 마중 나온 방장 정혜(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스님에게 합장한 채 '아미타불'이라는 인사로 예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또한 장 주석이 저명한 고승이자 시인, 서예가인 홍일민(一)대사와 시문에 능했던 중화민

국 초기의 고승 만수(曼殊) 스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들의 시문도 연구한 바 있다고 부연, 주목을 끌었다.

한편 대만 불광산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의 국보인 법문사(法門寺)의 부처님 손가락 진신 사리(眞身佛指 舍利)가 대만 주요 도시들에서 전시하게 된 것도 장 주석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주석은 대만 불교계의 대표인 불광산 성운대사와 만나, 중국-대만간 최초의 불교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김재경 기자

장쩌민江澤民·사진 중국 국가 주석이 불경을 읽고 있으며 참선으로 위출혈을 고친 바 있다고 밝혀 향후 중국의 종교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주목을 끌고 있다.

홍종 일간 명보(明報)는 20 "진신불지사리 대만전시도 일 장 주석이 장주석 지시로 성사" 후문 해서도 상세히 하북(河北성 조)현에 있는 백림선사(柏林禪寺, 방장 정혜스님)를 찾아 고승들과 대화하던 중 "당 총서기로 무신론자에 속하지만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관심이 있으며 1957년 3개월간의 좌선으로 위출혈을 치유한 적도 있다"면서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사찰의 명해(明海) 법사가 발표한 '장쩌민 총서기 백림선사 사찰 현장 기록'에 따르면 장 주석은 해마다 한 차례씩 꼭 종교기관을

대표적 지장도량 심원사지 복원

2004년까지 23억투입, 천불전·봉향각 등 건립

한국의 대표적 지장도량이었던 연천군 심원사지가 복원된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대 250만평에서 진행되는 심원사지 복원사업은 월원 심원사(주지 도후)와 경기도청, 연천군청이 23억여원을 투입하여 천불전, 삼성각, 봉향각, 사천왕문 등을 건립한다. 올해 1차 사업으

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친입로 정비와 사지정비 후 주법당인 천불전 착공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월원 심원사는 연천 심원사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와 연천군의 허가를 받은 후, 지난 4월에는 군부대로부터 사지복원 허가를 받았다.

647년 영원조사가 창건한 연천 보개산 심원사는 12개의 산내암자와 32위의 탕화, 1,609위의 불상, 탑 2기, 250간의 당우를 갖춘 대 사찰이었으나 6·25전쟁 당시 소실돼 현재 천불전 건물 1동, 지장보살석상 1위, 공적비 2위, 지장보살상 영합비 1위, 부도 11기만 남아있다. 이중 천불전 건물과 지장보살상은 6·25 이후 이전한 월원군 동승을 상노리 현재의 심원사로 옮겨졌다.

주지 도후 스님은 "6.25전쟁으로 소실된 심원사지를 올해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복원 하겠다"며 "이를 위해 몇 년 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정부가 편입시킨 사지소유 토지 250만평을 되찾아왔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목탁소리 '한국문학' 지원

천미희 (부산주재 기자)

생사의 무상함과 두려움, 인생의 절망과 고독 그리고 구원을 위한 깊은 종교의 세계까지 담고 있는 향가 '제망매가'는 불교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시공을 넘어 깨우침을 주는 '제망매가'의 큰 감동을 접할 때면, 향가를 대신할 이 시대 불교문화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사상의 기저를 이룬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나 고승들의 문집, 선시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대 불교문화의 창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지난 5일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 법화삼매당에서는 불교문화의 학술적 연구와 창작에 전한집을 가져올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삼광사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한국문학회(회장 정상진)에 매년 1천만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사찰

의 재정 일부를 불교문학의 발전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문학회는 "한국문학의 연구와 불교수문학 발전을 앞당길 값진 지원"이라며 지원을 크게 환영했다. 1977년 창립이후 38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문학회는 삼광사의 지원으로 연 2회 발간하던 논총집을 연 3회 발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교문화 관련 세미나 개최와 시, 소설 등 불교 창작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이번 삼광사의 한국문학회 지원은 그동안 삼광사가 삼광한글 학술상을 제정, 한글보급과 한글의 학술적 연구 발전에 기여해 온 공적에 비추어 불 대 불교문화 연구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문학회의 바람처럼 이번 지원이 삼광문학학술상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불교성지순례전문 (주)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 빌딩 4층
국외여행업 제 21-448호 / 국내여행업 제 21-138호

<p>중국 불교 성지 개략행사</p> <p>※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황주/상해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남경-구화산(육신보전, 백세궁, 천대 화성사, 저원사 등) - 황산 - 황산비경 - 황주 - 인천</p> <p>※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륙/중경/성도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 - 중경 - 아미산(금정, 보국사, 복호사, 만년사 등) - 낙산(낙산대불, 대불사 등) - 대륙(보정산석굴, 복산석굴 등) - 성도 - 인천</p> <p>※ 관음도량 보타낙기산/황주/영파/소주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 - 황주(영문사, 서호유람 등) - 영파(아육왕사, 천동사 등) - 보타산(보제사, 범우사, 조음동, 혜제사 등) - 낙가산(백팔나한탈 등) - 상해(임시정부청사, 육불사 등) - 인천</p> <p>※ 문수도량 오대산/대동/대원/북경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 - 북경 - 대동(운강석굴 등) - 현원(현공사) - 오대산(북대, 중대, 대라정사, 현통사, 탑원사 등) - 태원 - 북경 - 인천</p>	<p>불교 성지 순례</p> <p>인도 8대성지 10일</p> <p>▶ 주요순례지: 델리-북아원-부다가야-왕사성-열반당-룸비니-카투만두-인천</p> <p>인도 8대성지/넬룰 13일</p> <p>▶ 주요순례지: 울바이-엘라-아진타-산치-아그라-불교성지-포카라-카투만두</p> <p>미얀마 6일</p> <p>▶ 주요순례지: 양곤(세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p> <p>미얀마 7일</p> <p>▶ 주요순례지: 양곤(세다곤, 까바에 등)-파간-만달레이-민군-해호-양곤-인천</p> <p>스리랑카 6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콜롬보-플론나루와-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칸다-인천</p> <p>인도네시아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루부드로 사원 등)-발리-인천</p> <p>캄보디아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호치민-양코르지역(앙코르와트, 앙코르툼, 톤레사 등)-호치민-인천</p>	<p>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2)-인천</p> <p>민족의 영산 백두산 6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북경-연길(1)-백두산(1)-북경(3)-인천</p> <p>비단길(실크로드) 8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서안-둔황(막고굴 등)-유원-투루판(천불동, 고창고성 등)-우루무치</p> <p>구채구/황룡/성도 7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성도(문수원 등)-황룡-구채구-성도-대륙-중경-인천</p> <p>계림/소주/황주 6일</p> <p>▶ 주요순례지: 인천-계림(이강유람, 관암동굴 등)-상해-소주-황주-인천</p> <p>티벳/성도/낙산 8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성도-라싸-시가체-장체-라싸(포탈람궁 등)-성도-낙산-인천</p> <p>대만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타이페이-대중 불경사-화롄-타이페이-인천</p>	<p>중국 운남성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곤명(원통사, 곤명호, 민속촌 등)</p> <p>중국 운남성/대리/여강 8일</p> <p>▶ 주요순례지: 인천-곤명(구향동굴 등)-석림-대리-여강-곤명(곤명호, 민속촌)</p> <p>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오사카(오사카성 등)-교토-나라-벳부(온천)-인천</p> <p>일본 핵심일주 5일</p> <p>▶ 주요순례지: 오사카-교토-신간선-하코네온천-동경-닛코-후쿠시마 또는 나가타-인천</p> <p>일본 북해도 4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치토세-오타루-요지케이-삿보로-도야-노보리베츠</p> <p>북부 베트남/하롱베이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하노이-하롱베이-따끔-하노이-인천</p> <p>남부 베트남 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호치민-메콩델타-구찌-퐁타우-호치민-인천</p>	<p>유럽4개국 8일(영/프/스/이)</p> <p>▶ 주요순례지: 인천-로마-피렌체-베니스-밀라노-제네바-파리-인천</p> <p>지중해 3개국+룩소 10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카이로-아테네-이스탄불-카이로-룩소-카이로-인천</p> <p>동유럽+서유럽 완전일주 15일</p> <p>▶ 주요순례지: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하-베를린-팔스부르크-로마-피사-밀라노-파리-런던-인천</p> <p>미동부+캐나다 퀘벡 10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뉴욕-워싱턴-나이아가라-토론토-오타와-몬트리오-퀘벡-브리지포트-뉴욕-인천</p> <p>호주/뉴질랜드 남북성 10일</p> <p>▶ 주요순례지: 인천-시드니-크라이스트처치-퀸스타운-오클랜드-로트루아-인천</p> <p>캐나다 동서부 항공일주 8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밴쿠버-빅토리아-캘거리-밴프-나이아가라-토론토-인천</p> <p>중남미 5개국 17일</p> <p>▶ 주요순례지: 인천-멕시코시티-리우데자네이루-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리마-푸스코-인천</p>
--	--	---	---	---

여행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상호와 가격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십니까?
"정성이 듬뿍 깃든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